



제 4 권 11 호

kpcm NEWSletter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교회 | 성경으로 돌아가자 (2017 표어)



인사의 말 >>> 김영호 목사 (EM & Youth 담당)

Grace and peace KPCM members!

We are truly blessed and so thankful to God that He has called us here to this church, and to the wonderful state of Minnesota! We have enjoyed getting to meet and speak with many of you—inside and outside of church. We have enjoyed worshipping with all of you—especially on Wednesday nights and Saturday morning prayers. Although we have only been here for about two months, we feel as if we are at home already; we have adjusted very well to life in the Midwest, by God’s grace. However, I am a person who likes to wear his heart on his sleeve, and so I don’t think I will ever get used to “Minnesota Nice”—but everyone here has been very welcoming, accommodating, and accepting of our family!

As I move forward with the ministries entrusted to me, I desire to be a leader who people would be willing to follow and strive under. My biggest fear has always been the horror of leading and going forward, but no one following behind me. John Maxwell, an expert on management and leadership, writes in one of his books that when a leader leads but no one follows, the leader is not actually leading but only taking a walk. I know that not everyone will like me, my personality, or my convictions. But I hope that regardless of whether someone likes me or not, that I would be known and remembered as a man who humbles himself before Christ, and submits his leadership and convictions to the authority of God’s Word.

Until a few months ago, I thought that we would spend the rest of our lives on the East Coast (we spent the past five years in Philadelphia, but I spent almost my entire life in New York and Pennsylvania). I never in a million years would have thought that we would end up here. But we are truly, truly so thankful to be here, and I am personally humbled to serve in a church with so many godly and wonderful people!

당회 소식 >>> 당회서기

10 월 8 일에 열린 임시공동의회를 통해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청빙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습니다: 이미숙, 황지애, 황청수 (이상 당회), 김지현 (집사회), 남세현 (1 남), 최의숙 (1 여), 민철홍 (2 남), 김호정 (2 여), 이종욱 (바울), 이화주 (디모데)

청빙위원장 및 임원진 구성은 청빙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은 노회 liaison 인 Jim Brasel 목사님과의 미팅을 통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노회의 요청에 의거하여 먼저 우리교회 및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기 위한 Mission Study 를 곧 진행하게 됩니다. Mission study 를 위한 팀으로 당회에서 다음 분들을 선정하였습니다: 황청수, 남세현, 차병권, 김호정, 김지현

저희를 이 교회와 미네소타 주로 불러 주신 것을 참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특히 수요일예배와 토요일 아침 기도회)도 좋습니다. 이곳에 온 지는 불과 두 달밖에 안 되었지만 이미 집처럼 편히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드웨스트의 생활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을 잘 드러내는 편이라 “미네소타 나이스”에 적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저희 가족을 매우 환영하고 친절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제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여 나갈 때에, 저는 사람들이 기꺼이 따르고 성장하는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저만 이끌고 나아가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경영과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쓰기를, 리더는 이끄는 데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리더는 이끈다기보다는 그저 산보나 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나, 제 성격이나 제가 믿는 바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누가 저를 좋아하든 아니든, 저는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지도를 따르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믿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남은 인생을 동부에서 보내겠거니 생각했고 (저희 가족은 필라델피아에서 지난 오년을 보냈지만, 저는 평생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에서 살았습니다) 이 곳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좋은 많은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어 영광입니다.

Mission study 의 결과를 노회에 보내어 상의를 거친 후, MIF (Ministry Information Form)을 청빙위원회에서 작성할 예정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목사님 청빙광고를 공지할 것이며, 이후 제출된 자료와 정보를 통해 최종 후보 목사님들을 선정/초청하여 예배설교를 들은 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당회 서기(이재영 장로님)나 행정위원장 (황청수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결산하는 모임과 내년도 사업을 위한 각 기관의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업에 대해 의견 및 안건을 제출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 보고 >>>

제 1 남선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22 김태환 집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한국인의 암' 건강강좌를 개최하였고, 모두 32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진 1)
제 1 여선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7 전도축제가 있었습니다. 총 130 여분이 참석하셨고 23 분이 초대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사진 2) 10/21-22 양일간 바자가 있었습니다. 11/4 시카고 노스필드교회 강선우 목사님을 모시고 수양회를 했습니다.
제 2 여선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5 전교인 점심식사 봉사를 했습니다. 11/17 떡 만들기 강의를 했습니다. 11/26 제 2 여선교회 임원회가 있습니다. 12/3 제 2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영접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5 (주일) 오후 1 시 30 분에 회의실에서 4 차 새가족 교육이 있었습니다. 11/11(토) 저녁 5 시에 소천교실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풍성한 음식과 재미있는 게임이 함께한 즐거운 잔치였습니다. 새가족들을 만나시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3)
음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엘리에셀-11/5 과 11/12 총회를 했습니다(2018 년도 리더: 성동규 형제). 11/19 김광식 목사님 인도로 감사주일 예배 찬양인도를 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11/12 총회를 했습니다. 11/12 감사절 예배를 위한 총 리허설을 했습니다. 성탄절 음악예배 특별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오케스트라 -12 월 동안 4 주간 2 부 예배 오케스트라 반주를 합니다. 음악팀에서는 교회에 있는 피아노 5 대를 모두 조율하였습니다. 모든 피아노가 깨끗하게 잘 관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월 - Anoka County Jail 에 성경책을 전달하는 모금행사가 진행됩니다. 11 월 - BCCS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살 수 있도록 Cub Foods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11 월 26 일 - 전교인 점심식사 준비를 합니다.
한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학교 나랏말씀은 11 월 19 일 10 주차 수업후 11 월 26 일 휴강을 하고 다시 12 월 3 일부터 11, 12, 13 주차 수업을 재개합니다.



뉴스레터 11 월호(통권 45 호) >>>

제출해 주신 원고의 내용은 한정된 지면 및 시간적 제약에 따라 원고의 내용과 의도가 왜곡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편집부에서 내용의 첨삭 및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뉴스레터사역팀
위원장	황청수
디자인/편집	오은아
원고교정	이은실
취재기자	박은영
사진	각 기관
원고수집	각 기관장
인쇄/복사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송	뉴스레터사역팀
발행처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행일	2017 년 11 월 19 일

기사제보 및 원고제출

kpcmnew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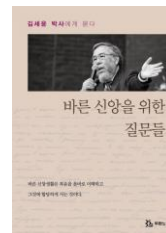
새가족 소식 >>>



이름: 이정숙 (김미선)
소속: 제 1 여선교회

이 달의 추천도서 >>> 도서팀

지금껏 믿어왔던 내 신앙, 과연 바른 것인가? 바른 신앙생활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5840 Humboldt Avenue N.
Brooklyn Center, MN 55430
763.560.6699 / 763.560.2222(f)
www.kpcm.org / kpcm@kpcm.org

포토 갤러리 >>>

